

성과 연연 ... 산단 조성·연구기관 유치 놓고 '상생' 대신 '상쟁'

광주시-전남도 에너지밸리 불협화음 배경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심해 만들어낸 빛가람혁신도시의 '열매'가 무르익기도 전에 그 성과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R&D)특구에 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전남도가 추진하자 광주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한전 전력연구원 입지를 두고 서로 자신의 구역을 주장하다가 논의 자체를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급기야 전남도가 상생과제의 하나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관련, 광주시와 사전협의 없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생'이라는 말 자체를 무색하게 됐다.

미래 핵심 산업인 에너지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역할 조정, 성과

공유를 위한 기본적인 논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개발특구 이어 에너지 특화산업단지 갈등=전남도는 올해 2대 프로젝트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내걸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향후 10년간 16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기로 할만큼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첨예기에 접어든 전남 기간산업의 대안으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우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LG화학, 삼성 SDI 등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관련 기업, 효성, LS산전 등 모터 관련 기업 등의 유치

미래핵심산업 ... 논의 중단 갈등 골 깊어져

개별추진 말고 시·도 협의체 구축 시급

에 나서고 있다.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렌탈 등 전기자동차 서비스산업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를 육성해 2만5000명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도 내놨다.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한데 들어서는 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이를 위한 핵심 전제다. 전남도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등 전력그룹사들과 가까운 위치한 나주혁신산단에 한전 전력연구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전력연구원은 지난 1961

년 설립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는 핵심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입장은 달랐다. 광주시는 남구 일대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연구기관을 집적시키려고 한 것이다. 전기연구원 본원과 신재생에너지실증센터에 전력연구원까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가 이에 발끈하면서 사실상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추진 안돼...시·도 협의체 구축

촉을=연구개발특구를 둘러싼 마찰도 여전히 내재돼 있다.

전남도가 광주 연구개발특구를 확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정작 광주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편입 면적은 8~9㎢ 내외로, 전남이 6~7㎢ 그리고 광주는 2㎢ 범위에서 협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고 용역을 발주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이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행·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가뜰이나 적은 관련 예산을 전남과 나누는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전남도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1억8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

너지밸리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에너지 특화 산단이 광주 방향이 아닌 나주 혁신산단이나 그 외 지역으로 결정되면 에너지 기업들은 광주와 전남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등 전력그룹사들도 이 같은 양상에 난처한 기색이다.

한 대학교수는 "한전 등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광주와 전남이 여전히 성과에 대해 경쟁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며 "상호 특장점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진 밭에서 서로 먼저 수확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년만의 '호남 독점 정당체제' 붕괴

민주당계열 17대 제외 13대~19대까지 '1당 독점'

더민주, 광주·전남 의원 잇단 탈당... 과반 붕괴 임박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탈당이 계속되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독점 체제가 무너질 것이 확실시된다.

더민주를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신인 평화민주당이 호남에서 1석을 제외하고 싸웠던 13대 총선부터 민주당계열 것 발로 치른 19대 총선까지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24년간 '1당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DJ)·김영삼(YS) 후보 단일화 실패를 계기로 DJ가 창당한 평화민주당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호남 총 지역구 37석 가운데 36석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DJ 적통을 이은 정당들이 '호남 1당' 전통을 이어갔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39석 가운데 37석이 민주당에, 1996년 15대 총선에서 37석 가운데 36석이 새정치국민회의에 돌아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것 발로 치른 16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후보에 광주·전북 각 1석과 전남 2석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29석 가운데 25석을 얻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새천년민주당이 전남에서 5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31석 가운데 25석을 가져간 열린우리당에 호남 제1당 지위를 내줬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이 31석 가운데 25석을,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계열이 30석 가운데 25석을 차지하며 호남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다.

이제 20대 총선을 석달여 남긴 상황에서 더민주를 호남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된다. 나아가 신당의 통합이 완성되면 '제1당' 지위도 내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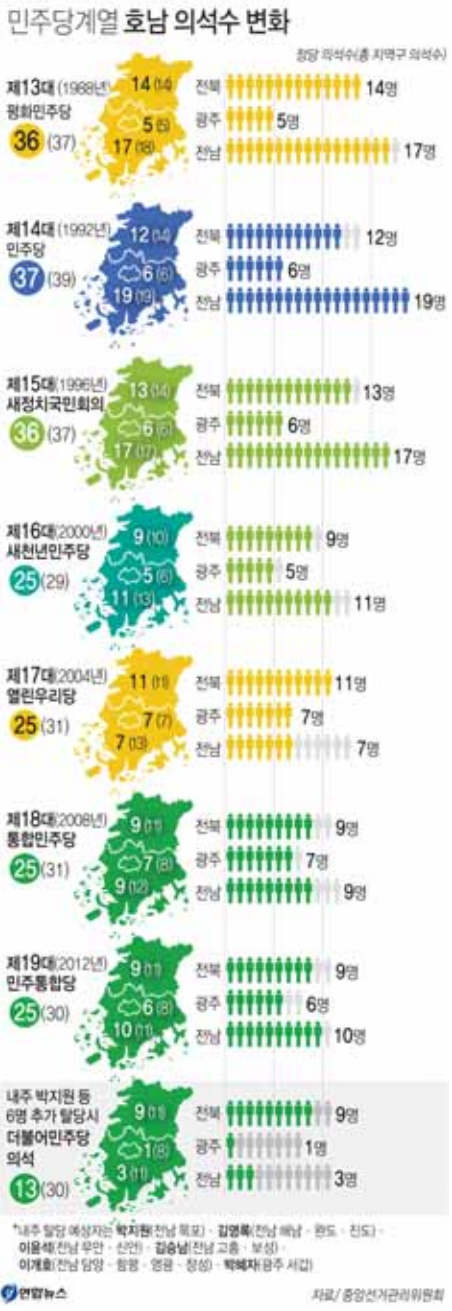
14일 현재 호남 지역의 더민주 탈당 의원은 천정배·김동철·박주선·주승용·유성업·장병완·권은희·김관영·임내현·황주홍·김승남 등 11명이다.

여기에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까지 박지원·김영록·이윤석·박재하·이재호 의원 등 5명이 탈당할 것으로 보여 더민주의 호남 의석은 원래 29석(새누리당 이정현 제외)에서 1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탈당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당 행을 선언했거나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 천정배·박주선 의원은 다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또 박지원 의원은 탈당하더라도 무소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호남 제1당 지위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호남 의원의 추가 탈당이 나 신당 통합이 완료되면 국민의당이나 통합민주당이 결국 호남 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전 의원 선대위원장 영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 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새누리 출신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

호남대표 선대위원장 추가인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 전 의원의 선대위원장 영입을 발표한다. 이어서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호남을 대표하는 선대위원장을 추가 인선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김 전 의원의 선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키고 김종인 박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의원을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칭한 뒤 "당이 유능한 경제경영으로 거듭나고 경제민주화 실현

을 위해 김 박사의 지혜와 경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거취와 관련,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야권 대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실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이 조기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문 대표는 일단 인제영입 등 일상적 당무를 맡게 된다.

문 대표는 광주 등 호남을 대표하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의 야권 대통합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문재인 대표의 깜짝 카드에는 조기 선대위 체제로 당을 안정시키고 안정수 의원이 창당에 나서서 국민의당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승부수로 읽힌다.

하지만, 문 대표의 승부수가 효과를 거두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각종 논란이 제기되는 등 역풍마저 우려되고 있다. 당장,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에 대해 당 내외

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거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친노 진영이 사실상 이익,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선대위 안정 이후, 문 대표의 2선 후퇴에 대해서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공천의 틀과 시스템을 정해 놓고 2선 후퇴하는 것은 민심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야권 통합의 대상으로 주목했던 천정배 의원은 더민주와의 통합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한 두 차례도 아니고 통합설을 계속 흘리고 있다"며 "더민주와 통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에기형)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 16.4km/ℓ(도시상연비 : 16.7km/ℓ, 고속도로연비 :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 103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기온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도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